



Market Index / 29일

코스피지수 ▲ 2687.45 +31.11	코스닥지수 ▲ 869.72 +12.90	유가(WTI, 달러) ▲ 83.85 +0.28	환율(원)	1USD 1402.11 100¥ 893.18	살매 팔매 1353.89 862.46	1EUR 1506.61 1CNY 199.37	살매 팔매 1447.83 180.39
---------------------------	--------------------------	------------------------------	-------	-----------------------------	----------------------	-----------------------------	----------------------

# ‘제주흑우’ 2030년까지 4000두 육성한다

### 도 ‘향토자원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 전략’ 수립 품질 개량·최적 교배기술 확립·유통시장 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흑우 4000두 사육을 목표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흑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하며 ‘향토자원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흑우는 한우에 비해 출하일령이 길고 출하체중도 적어 생산비가 늘어나는데 이로인해 경제성이 낮아 농가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품질 균일성이 떨어져 대중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흑우 총 사육두수는 2014년 1637마리, 2018년 1405마리, 2022년 1087마리까지 감소했으며 지난해 기준 1282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흑우의 평균 출하일령과 체중은 36개월, 645kg으로 한우 30개월, 737kg에 비해 길고 체중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최근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사료값 상승 등으로 한우산업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우를 대체할 제주흑우의 품질

을 높이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향토자원 제주흑우 브랜드 육성 전략에는 ▷개량방향 설정 ▷사육시스템 강화 ▷유통시장 확대 방안이 담겼으며 사육두수는 2030년까지 4000두를 목표로 한다.

개량방향 설정과 관련해서는 순종(축산진흥원)과 실용축(축산진흥원·육종농가)을 구분해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종 개량을 위해 고능력 흑우 수정란 생산·공급으로 기초집단을 확대해 연 3~4두의 우수 종모우 선발 및 정액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용축 개량은 검증된 한우, 흑우, 제주흑우와 한우의 교잡종(F1)

종모우 등을 활용한 교배체계별로 농가가 원하는 방식의 번식자원을 제공하고, 향후 도축성적 등을 통해 최적의 암소 교배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사육시스템 강화를 위해 제주흑우 인증 및 육종농가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되며 제주흑우 계열화 시스템 구축 등 유통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해 육성전략 수립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점검·공유할 계획”이라며 “제주흑우 증식과 체계적인 개량을 통해 명품 제주특산품으로 육성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열대작물 ‘사탕수수’ 제주서 재배 가능할까 서부농업기술센터 감귤·월동채소 대체 실증 추진

열대작물인 사탕수수가 제주 감귤이나 월동채소 등을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제주의 농업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작물로 사탕수수 재배 가능성에 대한 실증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제주농업은 감귤 단일 품목에 집중돼 있고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변화를 겪고 있어 최소한의 낭비로 재배할 수 있는 열대작물 등 새로운 소득작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에 센터는 제주에서 재배 가능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열대작물 사탕수수 재배 실증을 추진한다.

사탕수수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화분과 다년생 초본으로 평균기는 20℃, 강우량 1200~2000mm 이상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열대작물이다. 높이는 2~6m로 대나무와 비슷한 줄기에 즙이 풍부하고 단맛이 강하다.

현재 경기도, 거제도 등 일부 지역에서 체험용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재배작형, 생육기간, 품질기준 등 재배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센터는 실증 재배를 통해 제주지역 재배에 적합한 육묘 기술, 최소 생육기간, 최고 당도 형성시기 등을 구명하고 재배환경에 따른 주요 생육 특성을 파악해 재배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탕수수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되면 성숙기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망고 주스 못지않은 매력 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에 수입되는 사탕수수는 수도권 일부 카페에서 착즙 주스로 판매되며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감귤에 집중된 제주농업 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채소 처리난 극복을 위해 사탕수수와 같은 열대작물 도입이 시급하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소득작물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영탁기자

## ‘차별화된 제주 여행’

### 제주 웰니스 관광지 공모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여행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2024년 제주 웰니스 관광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건강의 합성어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는 제주의 산림·해양 등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마음 챙김 프로그램 및 수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 등 자연·문화·사람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개소가 선정됐다.

올해는 제주 웰니스 관광지의 인증 기간 3년이 만료되는 해로, 기존 11개 인증 업소의 재평가와 함께 신규 웰니스 관광지를 공개 모집해 평가할 계획이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로 인증되면 3년간 온·오프라인 홍보를 비롯해 상품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액 증대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원들이 29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산 마늘 피해와 관련 자연재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마늘 2차 생산피해 자연재해로 인정하라”

###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어제 제주도청서 기자회견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원들은 2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산 마늘 2차 생산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마늘생산자협회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비날씨가 이어지면서 마늘에서 2차 생산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남·경남에서도 이같은 피해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피해복구를 통해 내년도도 마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회원들은 이와 함께 “마늘농가들은 적정 생산을 위해 재배면적을 스스로 감축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며 “하지만 최근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가격폭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최소한 전체 생산량의 10%를 공공비축, 단기간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영총기자 yihyeon@ihalla.com

## 골프장 내장객 간신히 40만 넘겼다

### 올 1~3월 1분기 40만6700여명... 전년비 12.3% ↓

제주지역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석달 동안 내장객이 40만명을 간신히 넘겼다.

제주자치도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3월까지 도의 22만6998명, 도내 17만9730명 등 40만6728명으로 전년도 46만3516명보다 12.3% 줄었다. 도외는 13.5%, 도내는 10.7%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22년 1분기 61만여명에 비하면 75%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1월 내장객은 도외 4만8745명, 도내 4만7155명 등 9만5900명으로 이는 2021년 이후 한달 치 내장객으로는 가장 적은 수치다.

2월 내장객도 도외 6만1410명, 도내 4만9753명 등 11만1163명으로 도외는 30.2%, 도내 19.8%, 전체적으로 25.9%나 급감했다. 2월 도외 내장객 감소 수치는 지난 2022년 12월 -38.4%, 2023년 2월 -32.7%에 이어 세번째 큰 감소 폭이다.

그나마 3월에는 도외 11만6843명, 도내 8만2822명 등 19만9665명으로 도외 -0.8%, 도내 -8.8%, 전체 -4.3%로 감소세가 다소 꺾였다.

하지만 도외인 입장객의 감소를 보완했던 도내 내장객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골프장 영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탈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4년 최고품종 달코미 분양

수확 12월초순 당도 14Brix 산 1%

**만감류(1~3년생)**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조생(1~4년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히라베니(궁천이)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명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술포 방향 300m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 2022년 정부공식 무명묘 공급업체 선정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 신비향, 수라향, 설국향 궁천 5년생, 홍미향(화분)

- 유라조생 1~3년생
- 하례조생 1~4년생
- 궁천 1~4년생
-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신품종 다수보유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감귤묘목

▲유라조생 1,3년생	▲한리봉 2,3년생
▲궁천 2,3,4년생	▲황금향 2,3년생
▲레드향 1,3,4,5년생	▲하례조생 2,4년생
▲천혜향 2,3,4년생	▲레몬 4년생
▲하골 4,5년생	▲오히라베니 3년생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설속도 35년

##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 010-2699-2355